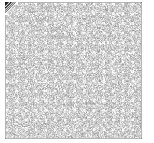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삼위일체 | 이남규 루카, 지름 300cm, 레드케임 기법, 1989년, 당산동성당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탈출 34,4ㄱ-6.8-9

화답송

다니 3,52ㄱ.52ㄴ.53.54.55.56(© 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2코린 13,11-13

복음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요한 3,16-18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삼위일체 - 하느님의 신비, 그 신비 담은 인간의 신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에게서 파견되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자의 수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였고, 오순절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파견되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전례력상 부활 시기를 마쳤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로써 하느님의 세 위격이 다 계시되었기에,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교회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경축합니다.

‘위격이 다른 세 분이 같은 하느님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철학적, 신학적 개념들이 동원됩니다. ‘위격’(persona)과 ‘본질’(natura, essentia, substantia)이라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설명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신비’이고 ‘지고의 신비’입니다.

이해불가능한 신비인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저 신학자들의 관념적,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지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순전히 지상적인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삼위로부터 오고 성삼위의 모상에 따라 구성되고 역사의 삼위일체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위로부터 형성되어 위

에서 오고(oriens ex alto),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역시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피부로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 인간 존재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의 깊은 신비를 지니신 분이시기에, 하느님을 우리가 온통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느님의 깊은 신비를 닮아 창조된 인간이기에, 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존재의 신비’를 품고 있고, 하느님의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국적이나 피부색, 재력, 능력,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그 안에 ‘하느님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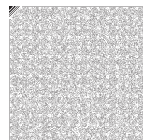
오늘 신비 중의 신비인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으며, 지엄하신 하느님의 신비 속에 잠기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깊은 하느님의 신비를 품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존엄함을 묵상해 보는 시간도 가져 봅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 그래서 때로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 가족과 이웃 한 분 한 분이 실은 하느님의 이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깊이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하느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허무에서 영원한 존재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갈 수 있습니다. 원형의 스테인드글라스 창에 표현된 삼위일체의 형상은 푸른색 배경 속에서 순박한 모습으로 빛나며,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빛을 누리는 기쁨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이기우 요셉 | 배우

가장 든든한 존재 주님

제 안에 기억이란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주 어렸던 시절, 기억이 조금씩 기록되기 시작했을 무렵 짧게나마 남아 있는 기억의 조각 속에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어머니 품에 안긴 채 보았던 유리창 밖, 많은 사람들과 스테인드글라스의 오묘한 빛깔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네, 바로 주일미사였습니다. 저는 유아방에 있었나 봅니다. 그날의 기억엔 모두 뒷모습인데 유독 한 사람만 저를 향해 서 계셨고 그분 뒤로 아주 큰 십자가와 함께 거대한 사람의 상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기억 속 첫 미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훨씬 작아진 했지만 비슷한 모양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꼬불꼬불 줄이 달린 다이얼 전화기와 아버지께서 매일 사 용하셔야 했던 뚜껑이 살짝 열린 혈압계, 그 옆에 작은 고상이 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꼬물거리느라 누워 있었는지 나란히 앉아 기도중이신 부모님 어깨 사이로 저를 바라보시던 고상의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주 보고 경험한 일상의 모습은 그렇게 어린아이의 기억에도 꽤나 선명히 남나봅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생활 속에 주님을 가까이 두셨고 항상 신앙 안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아 오던 부모님의 신앙인다운 모습은 자연스레 저희 형제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자 우주와도 같듯 어린 제게 가장 큰 존재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 두 분이 가장 믿고 항상 의지하신 커다란 하나님의 존재는 저에게 확실한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불에 누워 잠을 청할 때면 고사리 같은 손을 맞대고 주님께 비밀을 하나 둘 풀어놓고,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래 아닌 거

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거나 짝꿍을 괴롭힌 날에는 기도하는 손마저 부끄러웠는지 이불 속에 숨긴 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그래야만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과 하나님 덕분에 지금도 힘들거나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는 늘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흔을 넘기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영과 시기심이 어깨를 잡습니다. 욕심과 질투심이 저를 괴롭힐 때도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해결책은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찾고 저를 온전히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법 때가 묻은 지금의 제 손이 예전의 고사리 같던 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리광도 부리고,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든든한 주님. 그런 주님이 제 곁에 계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연고’가 되어주세요!

“너무 힘들었다. 하늘나라로 갈게.”

‘고독사’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북동 네 모녀’ 일가족 사망 사건 때 유족이 남긴 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네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혼자 죽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작년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의 중년 독거 남성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철(가명, 60대) 님의 첫 한마디였습니다. 얼마 후 상철 님이 출석하지 않아 자택을 방문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그나마 삶의 마지막 때에 복지관과 인연이 닿아 있었기에 오랜 기간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기로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은 보통 경제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가족 및 친구 등 외부와 단절되어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장기간 계속된 고립으로 육체 및 정신 건강에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주변 관리도 되지 않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일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에서도 소외되어 공공 체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겹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공공 복지 체계에서도 소외되어 빈곤과 질병, 외로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상계 3, 4, 5동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판자촌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수가 많아 이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일자리, 대인 관계, 건강 및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주거 문제는 물론,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및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에 많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성북동 네 모녀나 상철 님처럼 고독사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아프고 진물이 나는 곳에 ‘연고(軟膏)’를 바르면 새살이 돌아나듯, 연고(緣膏)를 발라주세요.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된 상황 속에 놓인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의 연고(緣故)’가 되어 상처 난 마음에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6월 3일~6월 3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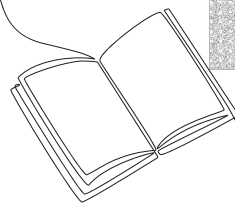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독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교회의 박해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 (사도 8,1-25)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 7장에서 언급된 스테파노의 순교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박해는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위대함으로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마리아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인물로 필리포스를 언급합니다. 필리포스는 스테파노와 함께 일곱 명의 '식탁의 봉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났고, 이에 놀란 많은 이들은 필리포스의 설교를 통해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그 지역으로 내려가 물로만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세례는 물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을 받는 세례임이 다시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8,18-24을 보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싶어,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은 사도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였고, 결국 저주의 말로 이어집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이 일화는 하느님의 은총을 본인 이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

는 성스러운 직분을 돈으로 사고팔거나, 축성 받은 성물을 정상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몬과 같은 이들이 없을까요? 시몬과 같은 이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사이비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는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몰두하는 이들의 집단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이용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테파노로 시작된 교회의 박해는 뜻하지 않게 다른 지역의 복음 전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에서는 교회의 박해가 파멸과 몰락으로 귀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를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만듭니다. 결국 하느님의 은총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느님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이며, 슬픔의 삶이 아닌 하느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의 삶입니다.

퍼즐풀이로서의 과학, 그 첫 번째 이야기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대학교 3학년 무렵에 과학철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마스 쿤(T. S. Kuhn, +1996)과 패러다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나름 전문 과학도로 훈련받던 저는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그간 체험한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의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쿤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전형적인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과학의 역사와 과학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쿤은 결국 과학 자체의 역사적,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는 역사학자 혹은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고, 패러다임이라는 말로써 과학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쿤은 과학의 단계를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전(前)패러다임 단계인데 이는 본격적인 과학이 성립되기 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 보통의 경우 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하는 과학 활동입니다. 이 단계에서 과학은 하나 혹은 몇몇의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패러다임이라는 말뜻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쿤이 단어의 정의(定義)를 내리자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 체계, 세계관, 가치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정작 패러다임을 과학철학에 도입한 쿤은 색다르게 그것을 설명

합니다. 쿤에 따르면 과학은 문제풀이 혹은 퍼즐풀이일 수 있고, 패러다임은 그 ‘풀이’의 모범입니다.

퍼즐풀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풀이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퍼즐 조각과 조각은 서로 아귀가 맞아야 하며, 모양이 서로 맞지 않는 조각을 연결하거나 심지어 조각을 잘라서 억지로 아귀를 맞추는 일은 금지됩니다. 둘째, 완성된 퍼즐의 형태, 곧 퍼즐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퍼즐의 규칙과 답을 안다고 해서 초보자가 곧바로 퍼즐을 다 완성해내진 못합니다. 퍼즐을 자꾸 맞춰보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비로소 산만하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도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과학은 철저히 방법론적 규칙을 따라갑니다. 과학은 양으로 측정해서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다룹니다. 이런 대원칙하에서 과학의 각 분야에는 나름의 세세한 규칙들이 있으며, 이런 규칙을 깨는 순간 그것은 과학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과학은 대다수의 경우 확실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퍼즐풀이하는 아이가 완성된 퍼즐 그림을 옆두에 두고 퍼즐을 맞춰나가듯, 과학자는 이미 실험으로 측정된 값을 이론 모델을 세워 설명하거나 혹은 역으로 이론으로 예상되는 값을 실험으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정해진 규칙과 확실한 답이 있지만, 규칙과 답을 안다고 해서 과학이라는 퍼즐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의 독특함이고, 여기서 과학의 힘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2017년 감독_드니 빌뇌브

선천적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어머니에게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아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은 글을 모르는 어머니에게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하트 모양을 보여주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아들이 설명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끌어안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속절없이 내비칩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큐멘터리는 아들의 눈물과 포옹에 더 따뜻한 포옹으로 화답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언어적 차원으로 전달되지 못한 사랑이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테드 창 의 단편소설 <네 인생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 <컨택트(원제: Arrival)>는 앞서 소개한 어머니와 아들의 사연을 떠오르게 합니다. 영화는 전 세계 열두 곳의 장소에 '셀'이라고 불리는 외계 비행체가 '도착(arrival)'하는데



영화 '컨택트(원제: Arrival)'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셀에 탑승해 있는 '헵타포드'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도착 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미국 정부는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언어학자 루이스(에이미 아담스 분)와 물리학자 이안(제레미 레너 분)을 군사 작전 팀에 합류시킵니다. 이들이 접촉한 외계 생명체는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의 문자를 보여주고,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로의 소통은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인해 군 수뇌부는 헵타포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들과의 소통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루이스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과의 소통을 진행해나가며 결국 외계의 언어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언어 체계를 벗어나 과거 · 현재 ·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듯 인식하는 외계의 언어 체계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루이스는 인류에게 벌어질 파국적 상황을 막아내고, 딸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이 반복될 자신의 미래를 또다시,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

우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인간의 언어 체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이 신비를 '믿을 교리'로 삼은 이유는 삼위일체 신비가 품은 하느님의 사랑, 즉 독자적인 세 위격이 함께 활동하심으로써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큐멘터리 속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랑'을 일깨우는 모습은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일깨워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더불어 외계의 언어를 파악하자 시간의 흐름에 구속받지 않고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게 된 영화 속 루이스의 모습은 삼위일체 신비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몸소 살아내려는 신앙인을 대변해 주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가 느낄 참된 자유를 상징하듯 다가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신비는 언어적 한계를 넘어선 자유를 보증하며, 말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끍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교회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며, 예수 성심(聖心)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해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오늘(6월 4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고문의 폐지'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 5일(월)은 '환경의 날'입니다

제29회 사제 성화의 날 행사 및 사제수품 25주년 축하 미사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인 6월 16일(금)은 '제29회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교구 사제단이 함께 모여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25년 동안 착한 목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오신 신부님들을 위해 교구장님과 사제단이 함께 축하 미사를 봉헌합니다.

때, 곳: 6월 16일(금) 10시~16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내용: 교구 사목 포럼 소개, 성체조배, 교구장님 시간, 미사(14시 30분), 사제 은경 축하식(미사 후)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6월 8일 손영일 바르나바 신부(67세)
- 2015년 6월 7일 임응승 사도요한 신부(93세)
- 2017년 6월 6일 최승룡 테오필로 신부(80세)
- 2020년 6월 7일 정훈 베르나르도 신부(57세)

교구청 알림

한국-바티칸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때, 곳: 6월19일(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초청: 모든 신자 / **발표:** 서울평단협 회원 성음악 단체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 회비 없음

하루 피정 '자존감 되찾기'

주제: 여전히 나는 사랑스런 존재
때: 6월10일 13시30분~17시 / **지도:** 문종원 신부
곳: 영성센터 302호(명동)

2023년 월요 성경통독(사목국)

내용: 친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9년 2월28일 이전 출생) / **문의:** 02)740-9704, 9705
원서접수: 9월11일(월)~15일(금)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3일(금)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참조

순교자현양 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화) 6월6일 · 7월4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6월17일(토) · 18일(일), 27일(화)
곳: 원주 용소막, 묘재, 배론
신청: 6월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전화 및 문자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6월17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6월7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생명위원회

1) 2023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대상: 만 20~39세 미혼 남녀
때, 곳: 7월1일(토) 13시30분~2일(일) 16시(1박2일), 곧벤 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용산구 한남대로 90)
회비: 5만원(전 일정) / 6월21일(수)까지 접수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한국틴스타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2) 6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6월5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 / **문의:** 02)727-2353 생명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카카데미

주제: 중독이란 무엇인가 / **회비:** 없음
강사: 엄태진 교수(한국 음주문화 연구센터 전문 상담사)
때: 6월14일 · 6월21일 (수) 14시~15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05-3호 / **문의:** 02)727-2126
홈페이지: (<http://seoulcpc.catholic.or.kr>) 참조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6월5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형규 개인전: 1전시실
양현정 개인전: 2전시실
박정열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31일(수)~6월8일(목)

제51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의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전 신자 및 후원회원
주제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곳: 6월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계 오르간 릴레이 세미나

대상: 각 분당 오르간 반주자(평일 미사 반주자 포함)
때: 7월8일(토) · 7월15일(토) 10시~17시(2회 필수 참석)
접수 및 등록: 6월7일(수)~23일(금)까지
접수방법: 아카데미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충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사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6월10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5월29일(월) 10시~6월7일(수)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6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6월28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명동대성당 상설교회소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제주 면형의 집 연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4복음서 통독과 함께하는 6박7일 생태 연피정

때: 7월12일~18일 / 문의(접수): 010-2634-2046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대회

때: 6월10일(토) 9시~17시30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미사: 이기현 주교 / 강사: 김재덕 신부, 마진우 신부

때, 곳: 6월6일(화) 9시~17시30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경기 남양주 다산지대로 91) / 회비: 5천원(티켓 구입)

문의: 010-2127-0032, 010-9697-9004

역삼동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 경환당 BI(주차 가능)

문의: 010-4667-3792 제11강남지구 성령봉사회

6월9일	김용태 신부	6월16일	김성대 신부
------	--------	-------	--------

'렉시오 디비나 교실' 피정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당일	6월10일(토)·6월24일(토) 14시~17시	1만원
3박4일	6월26일(월) 15시~29일(목) 16시	24만원

우이동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대침목 피정	6월9일~11일, 7월27일~30일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6차	6월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때, 곳: 매일 둘째주(토) 6월10일 14시~18시,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신

앙선조는 '예수애인' 어떻게 깨닫고, 실천하였는가?

지도: 정종득 신부 / 성가: 고영민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한티가는길

때, 곳: 1차 7월12일(수)~14일(금)·2차 10월2일

(월)~4일(수)·3차 10월16일(월)~18일(수)·4차 10

월31일(화)~11월2일(목)·5차 11월28일(화)~30일

(목), 왜관 피정의 집(주최)·대구 포교 성 베네딕

도 수녀원 영성관(4차) / 회비: 25만원(2박3일)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6월10일~12일·6월18일~20일·6월23일~25일

·7월7일~9일·7월22일~24일·7월28일~30일·8

월1일~3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8월5일~8일·8

월11일~14일, 추자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

일~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인천교구 지혜의 샘 예수 성심 성월 대피정

때, 곳: 6월7일(수) 10시30분~17시30분, 지혜의 샘

(부천시 송내동 366-5) 5층 / 점심 식사 무료 제공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오전 강의	은성계 신부
오후 강의·미사	이용권 총대리 신부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하늘, 바람, 나(힐링 피정)	6월9일(금)~11일(일)
효소단식	6월22일(목)~25일(일), 7월20일(목)~23일(일)
성경완독	7월7일(금)~15일(토), 8월11일(금)~19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10일(토)~11일(일), 8월2일(수)~3일(목)
3박4일	7월13일(목)~16일(일), 7월20일(목)~23일(일)
8박9일	6월15일(목)~23일(금), 6월29일(목)~7월7일(금)
40일	10월4일(수)~11월12일(일)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내용: 오후 2시 로사리오 기도, 오후 3시 미사 봉헌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6월13일(화)	절두산 순교성지	집전 유경춘주교
7월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구요비주교
8월13일(일)		집전 정순택대주교
9월13일(수)	절두산 순교성지	집전 두봉주교
10월13일(금)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염수정추기경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때: 6월11일(일) 11시~15시

곳: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성가정 영성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강사: 이상재 신부, 이현주 회장

때, 곳: 6월7일(수)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

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6월11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8월

4일~7일·8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전례를 위한 오르간 교육(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음악원(주최, 신촌)

군중후원회 월례특강·군중교구장 미사

때, 곳: 6월5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

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군중교구

청, 왜곡개성지 내) / 문의: 02)776-0457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만 14시·금요일만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서울대교구 36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7월2일~30일 매주(일) 13시30분~18시30분

(5주간, 구의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jsyeom@hanmail.net)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기념 이벤트

내용: 수강료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

회비: 일반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이사야의 희생제사

강의·미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6월12일(월) 14시~16시 / 문의: 02)705-4711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luke153연구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02)324-0852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수료특강 / 문의: 02)753-8765

주제: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 조성품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때, 곳: 6월11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바오로딸 '영화 속 행복찾기' 60대 시니어 모집(기초반)

주제: 자아성장 및 신앙성숙 위한 힐링 무비 / 선착순 10명

때, 곳: 6월23일부터 매일 둘째·넷째주 (금) 13시30분~

17시30분(총8회), 혜화바오로딸 혜화나무 / 회비: 15만원

문의(접수): 010-2928-8274 이 벨라벳다수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2차 모집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장기요양 포함),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 면접: 미정

접수: 6월19일(월)~7월2일(일)

문의: 02)3147-8781(https://welfare.catholic.ac.kr)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습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02)382-5652 서울시교육청등록대안교육

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 밖 청소년	14세~24세 / 학업(검정고시·수능), 사진, 영어대화, 영화독서토론 등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및 수능 학습지도 가능하 신 분 / 주 1, 2회(2시간)

성마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곳: 성마로수도회(강북구 송충동) / 미사 있음

매주 (화)	예언서 10시~12시30분 / 010-9333-6260 개강: 9월5일, 북카페 레벤(논현동, 전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180미터) / 총45주
매주 (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예수회센터 여름 특강

7월 개강, 각6주 / 현장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애적 호소	문점숙 조경자수녀
(화)	우리가 모르는 교회론적 질문들	김민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예언서	주원준 박사
(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윤리와 영성	박상훈 신부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불완전한 영혼의 영성 여정	최지원 수녀
(금)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셋째주(토) 6월17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27-2489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6월7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

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국악성가연구소 월례미사·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월례미사	6월5일(월) 14시	무용반	매주(금) 15시
성가반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반	초급반 (목) 13시30분		

안내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

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콜라비수녀회)

전생애 심리치료와 가든테라피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때, 곳: 6월11일(일) 14시, 홍대 근처 / 무료

인원: 10명 / 문의: 010-3703-5904 경혜자 수녀

주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연남동 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포메스심리상담소 / 문의: 010-3201-0520

신심 좋은 전문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드립니다 / 전화, PC(Zoom), 대면상담 모두 가능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30년(추가 30년 가능) /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

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요양보호사·위생원(주40시간 근무), 파트타임조리

원(주20시간 근무) 모집합니다 / 팩스: 02)3422-3512

문의: 02)490-2609 / 이메일: sinkflower3@hanmail.net

갑구정1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계약직) 1명 / 대상: 세례받은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이메일 문의

채용시까지 이메일(ceelvipriti@daum.net) 접수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원 0명(계약직) /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 등 주방업무(단체 급식 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

인서(본당 발급 / 타교구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이메일 문의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매월 첫째주(일) 12시30분	수녀원(평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월10일(토) 14시~11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6월17일(토) 15시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구세례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7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항복하라 -오직 하느님 뜻에

래리 리처즈 지음
바오로딸 | 276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우리를 참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느님께 항복하는 삶,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래리 리처즈 신부의 강연집이다. 현대인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는 '항복'이라는 강한 단어를 통해 저자는 안이한 영성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힘 있게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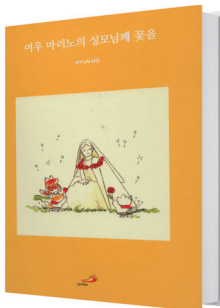


신간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

홍승의 지음
성서와함께 | 316쪽 | 1만9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과테말라 '천사의 집' 홍승의 신부가 함께 지내는 청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저자는 마치 빛으로 유리 조각이 반짝이듯 깨진 유리 같은 아이들의 상처가 별이 되기를 꿈꾼다. 또한 화두를 풀어 내 보기 위해 탈출기를 읽고 묵상하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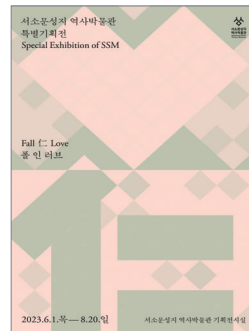


신간

여우 마리노의 성모님께 꽃을

HYUN HO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64쪽 | 1만6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5월 성모 성월을 맞아 마리노와 친구들이 성모님께 바칠 꽃다발을 준비하는데, 모두들 누구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성모님께 바치고 싶어서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궁리한다. 성모님께 누가 가장 예쁜 꽃을 바칠까?



전시

특별기획전 'Fall 仁 Love'

때: 6월 1일(목)~8월 20일(주일)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주최·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문의: 02)3147-2407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상반기 특별기획전 <Fall 仁 Love>는 개개인이 가진 아름다운 다양성에 주목하여 모든 사상을 포용하는 전시다. 유교를 근간으로 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배움과 실천을 통해 21세기 인(仁)을 조망해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인(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체현양대회

제100차 풍수원 성체현양대회

신청·문의: 033)342-0035 풍수원성당,
033)765-4221 원주교구청, 033)240-6000
춘천교구청

원주교구와 춘천교구 주최로 <제100차 풍수원 성체현양대회>가 6월 8일(목) 10시 30분, 풍수원성당에서 열린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1)라는 주제로 1부는 미사(강론 광장), 2부에는 성체 거동 및 강복(산상)·성체 강복(성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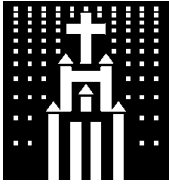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공연

헤화나무와 함께하는 클래식 포유

입장권: 1만원(기업은행 005-116491-04-019
(재)천주교성바오로딸수도회)
신청·문의: 010-9759-0882 (문자)

<클래식 포유>가 6월 17일(토) 4시부터 80분간, 바오로딸 헤화나무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의 진행으로 6월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정욱과 함께하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클래식 선율을 통해 음악이 주는 평화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평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김) 신부
부 주 임 진솔기(토파스아퀴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보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 작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작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81

봉헌 : 340, 216, 210

성체 : 344, 156, 151

파견 : 83

【 2023 본당의 날 행사 '님 찾아 나선 길' 】

본당 공동체의 날에 함께하는 박달재자연휴양림 트레킹 및 배론성지 순례 행사 신청에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있을 '님 찾아 나선 길(#두벅두벅 #또박또박)' 준비를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행사 관련 공지를 숙지해 주십시오.
(※행사일정 및 유의사항은 주보 안쪽 면 참고!)

출발일시 : 6월 6일(화) 오전 6시 30분 출발
(※오전 6시 20분까지 탑승완료!)

출발장소 : 신청접수 시 선택한 장소에 따름.
준비물 : 트레킹화 또는 운동화 착용, 바람막이 간단한 간식, 모자, 장갑, 미사 준비

◎ 명동대성당 전례음악 소식지 게시

주일미사 성가들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당 홈페이지에 전례음악 소식지를 게시합니다.

·게시판 : 홈페이지→성당소식→전례음악

·게시일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6월 예비신자 교리반

6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12월에 거행되며, 6월 4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7:30	교구청 본관 402호	이철규 (아우구스티노) 신부
토요반	오후4:00		김 오티리아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수요반(6월 7일), 토요반(6월 10일)

◎ 병자 영성체 : 6월 7일(수) 오전 9시

◎ 연평회 월례회의

·일시/장소 : 6월 11일(주일) 오전 11시 / 교스트 홀

《 사제 성화의 날 》

오는 6월 16일(금)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聖化)의 날'입니다. 사제 성화를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사제 성화의 날 행사 관계로

당일 오전 10시 미사와 상설 고해성사는 없으며, 09:30~16:00까지 '대성전' 출입이 불가합니다.

《 대주교님과 주임 신부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오는 6월 29일(목)은 교구장이신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님과 본당 조학문(바오로)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대주교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임 신부님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주교를 위한 기도, 미사참례, 묵주기도, 성체조배, 희생

◎ 2023년 명동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 2023년도 상반기 견진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1,929,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22-5/28).....20,694,130
- 성령 강림 대축일 헌금.....32,672,111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10,208,000
- 감사헌금 (5/22-5/28).....397,000

김 가타리나 / 김 글라라 / 김 발렌티노
백 안나 / 심 알베르토 / 이 리베라도
임 사무엘 / 홍 플로라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성지미사	대성당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월	토	토	토	오전 4시 - 6시	
					토	
	토	토	토	토	오전 3시 - 5시	